

북조선 지도자에 보내는 가족회, 구출회의 메시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일괄귀국을 결단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1997년부터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해 온 가족회와 구출회입니다. 가족회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부모, 형제, 자녀 등으로 이뤄진 조직이며, 구출회는 이를 지원하는 뜻이 있는 일본 국민들의 조직입니다.

우리 활동의 목적은 단 하나,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수 십 년 동안이나 만날 수 없고, 오로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 형제의 찢어지는 마음을 꼭 상상해주시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비록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의 납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28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다음은 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북조선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일괄귀국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돌아온 납치 피해자로부터 비밀을 캐 국교정상화에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족회는 납치 피해자와 조용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구출회도 그 실현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일괄귀국을 결단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2019년 2월 17일 도쿄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 이이즈카 시게오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 니시오카 츠토무